

목포시 “천사대교, 지역발전 호재로”



설 귀성행렬이 본격화된 2일 오전 신안군 압해도와 임대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섬 지역 고향을 찾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천사대교는 설을 맞아 1일부터 7일까지 임시개통한다. 뉴스

내달말 정식개통...인접 지자체와 관광협의체 구성 서해안고속도로·무안공항 등 연계 관광상품 개발

천사대교 개통을 계기로 인접 지자체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된다. 목포시는 신안 압해와 압태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을 지역발전의 호재로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천사대교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일 임시개통됐다. 임시 개통 기간은 7일까지다. 천사대교는 이어 다음달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이처럼 천사대교가 임시개통을 이어 다음달 말 정식개통을 앞두고 목포시가 전남

도와 신안군, 무안군과 관광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섬과 바다, 갯벌 등 특색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 KTX 등을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을 다양화해 공동마케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천사대교가 오는 4월 개통예정인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목포의 관광자원과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는 앞서 신안군 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단체의 의료봉사, 시립예술단체의 공연 등을 진행했다. 또 신안군과 협의해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거쳐 압태면까지 왕복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택시 운행과 요금 체계도 관련 업체와 함께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상 이정표와 관광안내판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연말부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사대교 정식개통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안군과는 섬의 날을 공동 개최키로 합의하고 유치를 위해 함께 뛰고 있다”면서 “목포시와 신안군이 천사대교와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을 계기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백만성기자 mspark214@srb.co.kr



안성 구제역 발생따라 농가에 예방 당부

김준성 영광군수, 현장 방문하며 차단 방역 요청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된 뒤 구제역이 다른 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일선 농장을 방문하며 차단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달 말 전라북도 경계인 우평리 거점소독장소와 대마면 소재 한우농장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격려의 말과 함께 구제역 차단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 젓소농가에서 구제역 양성우 발견 이후 29일 안성시 한우농가에서 추가 발생하여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달 관내 젓소 사육농가 17농가

를 비롯해서 지난 4일까지 관내 한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 동원 신속히 접촉을 마쳤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금까지 영광군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각 농가에서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함께 외부인과 외부 차량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하여 거점소독장소 우제류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귀성객이 축산농가에 방문하지 않도록 읍·면 및 주요도로 12개소에 현수막 설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정병환기자 yjgic1130@srb.co.kr

무안군 노후경유차 폐차 최대 3천만원 보조금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사진)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5등급) 및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3종 중 신청자(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165만원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조기 폐차 대상 확정 후 4개월 이내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신규 구매, 등록했을 때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8일부터 3월 5일까지 무안군청 환경과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기 폐차사업 시행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백만성기자 mdrn007@srb.co.kr



대풍 홍어에 어민은 한숨 신안군 대표 특산물인 홍산홍어가 대풍으로 위판장에 출어가 넘쳐나지만 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의 한숨 소리는 커졌다. 신안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 어획고가 하루 1천 - 1천800마리를 위판 하는 등 평년에 비해 배이상 많고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8kg짜리 암컷상품 한 마리 평년 가격의 절반이었던 35만원 선으로 하락했다. 홍산홍어는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우며 담을 삭히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 천식, 소화기능개선은 물론 삭혀서 먹어도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특별한 생선으로 흑산도에서 오는 5월 홍산홍어 축제를 개최한다. 신안=백만성기자 pkw4803@srb.co.kr

농기계 임대,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

진도군, 농기계 70종 650여대 구입해 2만6천여회 임대

2007년부터 시행된 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임대농기계 사업소(2007년) ▲사부분소(2013년) ▲조도분소(2016년) 등 현재 3곳의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12년 동안 맞춤형 농기계 70종 656대를 구입, 총 2만6천72회에 걸쳐 농민들

에게 임대했다. 특히 매년 농가의 임대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군은 올해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임대 농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임대농기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파손된 농기계를 수리하는 등 울

해 영농시기에 맞춰 적절한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할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해년마다 확대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농기계를 맞춤형으로 확보하겠다”며 “농기계 사용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540-6127, 서부 544-6137, 조도 542-2276)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진도=백만성기자 hm3753@srb.co.kr

‘나주시 푸드플랜’ 전국 공모서 1위

생산·유통·소비에 필요한 시설·프로그램 등 지원

나주시가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지원 1순위에 선정됐다. 정부의 핵심농정사업인 지역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해 2월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도·농 복합형’ 선도지자체에 선정됐다. 올해 첫 시행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목표로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역별 자원현황을 고려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선정된 9개 지자체 중 나주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패키지 지원 1순위에 선정됐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 먹거리 전담부서인 ‘먹거리계획과 신설’을

비롯해 지난 해 11월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의 ‘로컬푸드 공공급식 공급 MOU 체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합의를 위해 구성된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90억 원을 투입해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융복합활성화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생산농가 기획생산기반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등 12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장기 플랜을 통해 연간 700억 원 규모의 관계시장 개척, 월 소득 150만원 2천 농가 육성, 200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도농 교류, 생태계 보전 등 공익적 가치와도 긍정적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황종환기자 h6450909@srb.co.kr

ROAST ISSO e' CAFE COFFEE SHOP

1F ·이수에카페 ·브라보 치킨피자 ·참숯집

2F ·이수에카페

3F ·더 캠프 PC방

4·5F ·레이크 락 볼링장

나주시 빚가람동 331-2번지 (나주혁신도시 전담대 인근) 아이디빌딩

ROASTERY ISSO e' CAFE COFFEE SHOP TEL. 061-337-7676 나주시 빚가람동 331-2번지 아이디빌딩 1·2층